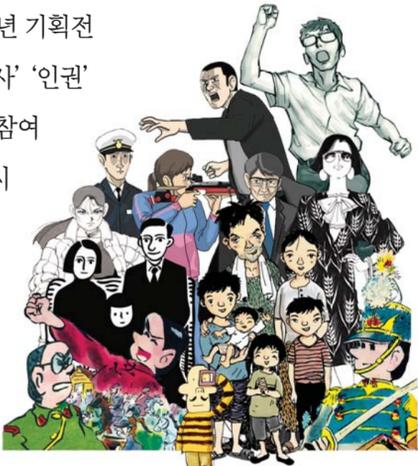


만화로 보는 격동의 근현대사 100년

광주시립미술관 6월 30일까지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전

대한민국 100주년 기획전
'항일운동' '현대사' '인권'
이현세·강풀 등 참여
원화·모션툰 전시



전시된 만화를 직접 읽을 수 있는 공간.

전시장의 대형 스크린에선 강풀 작가의 만화 '26년'의 장면 장면이, 빠르게 움직인다. 한혜진·진구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26년'은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스크린 앞 의자에 앉은 관람객들은 화면에 빠져들며 작품에 집중하고 있다.

옆에 전시된 최규석의 6·10 항쟁 만화 '100℃' 원화 중엔 익숙한 장면이 눈에 띈다. 최부탄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의 모습이다. 전태일의 삶을 다룬 만화 '태일이'에 등장하는 평화시장 '시다'들의 노동현장은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마치 겨울이 되는 것과 같다'는 글귀가 마음에 남는 박건웅의 만화 '제시 이야기'도 인상적이다. 또 시사카툰 속 세상은 우리 사회가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 운동, 일제 강점기 독립군의 활약,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그리고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전승보)에서 열고 있는 2019 민주인권평화전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전(6월 30일까지)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만화'를 통해 격동의 시대를 관통해온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는 전시다. 해마다 5·18 기념재단과 민주인권평화전을 열고 있는 시립미술관은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시립미술관이 개관 후 처음 기획한 '만화 전시' 현장은 흥미로웠다. 지난 주말 찾은 미술관에 스쳐지나가는 감상자가 아닌, 만화책 원본과 원화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영상으로 제작된 작품을 감상하며 오래도록 머무는 이들이 많았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만화를 입체적인 공간인 전시실로 가져온 이번 기획은 다채로운 공간 구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스토리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작품을 '모션툰'으로 제작·상영하고 만화책 원본, 원화, 원고, 콘티 등 아카이브 자료를 충실히 갖췄다. 또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으며 무엇보다 작가들의 손때가 생생한 콘티와 원화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다.

전시작품은 '항일운동', '현대사', '인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항일운동 섹션에서 만나는 작품은 박기정의 '폭탄야'다. 중국과 만주벌판에서 일본군과 사투를 벌



오늘 광주를 다룬 강풀 작가의 '26년'을 만날 수 있는 섹션.



박기정 작가가 제작한 '대통령 캐릭터'

인 독립군이 이야기를 그린 장면만화로 1964년 출간된 책을 2016-17년 복간·재출간한 작품이다.

인상적인 작품은 박건웅의 '제시 이야기'다. 상하이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 부부가 중국에서 딸 '제시'를 낳고 기록했던 육아 일기를 모은 책 '제시의 일기'를 만화가 박건웅이 그래픽 노블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어느 독립 운동가의 육아일기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 일상, 인간애를 보여주는 기록의 대서사시'라는 설명처럼 '제시 이야기'는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작품이다.

현대사 섹션에서 강풀 작품과 함께 전시된 만화는 최규석의 '100℃'다. 뜨거웠던 6월 민주항쟁을 생생하게 극화한 작품으로 고지식한 주인공 영호가 대학에 입학,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게 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겪으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인권' 섹션에 선보이는 이현세의 '떠느리 밥풀꽃에 대한 보고서'는 1970-80년 이농현상에 따라 대도시로 상경한 여성이 겪는 사회문제를 고발한 리얼리즘 만화며 최호철의 '태일이'는 전태일의 삶과 1960년대 당시 노동현장을 생생히 그려낸 작품으로 감동을 준다.

특별전으로 구성된 '시사카툰'은 경향신문에 만평 '장도리'를 그리고 있는 박순진, 카툰 작가 신명환이 참여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파울로 코엘료 책의 삽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던 조선대 황중환 교수는 대표작인 '386C'를 전시하고 있다. 또 박기정 작가가 역대 대통령의 특징을 잡아내 만든 '대통령 캐릭터 돌'도 흥미롭다. 전시는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등이 후원했다.

개막식은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열리며 이현세 등 작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613-7122.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주 출신 정지 장군 갑옷 복원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보물 제 336호



고려 말기 명장인 정지(1347~1391) 장군의 갑옷이 복원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박물관에 보관 중인 정지 장군의 갑옷(보물 제336호)을 고려 시대 제작 당시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 장군은 고려시대 충무왕에서 공양왕 때까지 병마사, 손문사, 원수 등을 역임했다. 전라도 일대에 침입한 왜적을 무찔러 큰공을 세웠다. 나주 출신으로 본관은 하동(河東)이며 시호는 경렬(景烈)이다.

당시 착용했던 갑옷은 문중의 후손들이 보관하다가 1986년 박물관에 기탁했으며, 현재 갑옷은 목 주변과 앞·뒷자

락의 하단 부분이 유실돼 원형의 형태는 아니다. 갑옷 복원은 자료수집, 유물 사진 촬영 및 실측, 제작도면 작성, 복원품 제작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검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크기, 모양 등을 동일하게 표현한다는 복안이다.

박물관은 오는 12월까지 복원을 완료해 갑옷을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은 "이번 갑옷 복원을 계기로 고대 갑주 문화 자료 구축은 물론 고려 당대의 기술력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은암미술관 27일 류봉자 선생 휘호행사

4월 15일까지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전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소현(素玄) 류봉자(소현서예원 원장) 선생 휘호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4월 15일까지 열리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전 '태양만세(太陽萬歲)'를 꿈꾸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기획이다.

이번 전시에 유관순 열사의 기도문을 입서한 '소녀 류관순 열사의 기도문'을 출판한 소현 선생은 소암 현중화 선생을 사사했으며 광주교육대학교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유관순 열사의 후손인 소현 선생은 "유관순 고모가 어린나이에 옥고를 치르고 순국을 하여 옥중에서 남긴 짧은 문구 외에 남겨진 유품과 글이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전에서는 애국선현의 유묵을 입서한 작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서예인 45명의 회원이 담긴 작품 등 총 45점을 만날 수 있으며 민족대표 33인중 한 명인 청암 권병덕 선생의 묵란도 8폭 병풍, 3·1 독립선언서(보성사판), 대한독립여자선언서, 독립선언서(영문)의 영인본, 백범 김구 선생의 화광동진(和光同進) 영인본도 함께 전시 중이다.

한편 이번 전시와 관련해 지난 2월 26



일에는 학정 이돈홍, 담현 전명옥 선생의 휘호 행사도 열렸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2019 Dinner Show

박상민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롤케익 증정)

ShinYang Park Hotel
HOTEL & RESORT CLUB